

### 세이브티베트는 인간존엄의 실현

페스티벌에서 울려 퍼진 하나의 꿈



44세이브티베트페스티벌에서 열창의 무대를 선보인 가수 강산에.

“우리의 꿈은 히말라야보다 높고 영원합니다.”

제4회 세이브티베트페스티벌(Save Tibet Festival)이 8월 8·9일 양일간 ‘플링홀’에서 열렸다. 가수 강산에와 그룹 체리필터를 비롯한 인디밴드들이 모두 출연료 없이 참여해 티베트의 평화를 외쳤다.

세이브티베트는 인간존엄(Human Right)의 실현이다. 이번 축제에서 만난 자원 활동가 김미나(30·회사원)씨는 인도 다람살라에 위치한 난민지원 NGO ‘록빠(Rogpa)’ 산하 무료탁아소에서 2년간 무료로 봉사한 열혈 활동가다. “2005년 9월 처음 문을 연 록빠 탁아소는 티베트 본토의 문화를 이어가지 못하게 된 위기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하루 일당 천 원이라는 돈을 벌기 위해 부부가 500km 거리를 출퇴근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울곧게 키우기란 참 버거워요”라고 말했다.

가수 강산에(44)씨는 공연을 마치고 “우리는 자유롭게 깨어 나고 살아있음의 권리가 있다. 삶의 초점을 어디에 뒀어 할지 신중해야 하며 나의 음악이 티베트의 평화를 위한 바른 명분이 되길 바란다. 세이브티베트야말로 우리의 삶이자 권리다”라고 말했다.

총감독을 맡은 티베트인 잠양(32)도 티베트 국기를 펼쳐 보이며 눈물을 글썽였다. “행사를 통해 모아진 후원금은 100% 전액 다람살라로 향합니다. 티베트 난민의 고통은 이 사회가 당연한 현실임을 체감해 주길 바랍니다. 한국인에게 감사합니다.” 제4회 세이브티베트페스티벌은 끝났지만 티베트의 인권을 되찾는 그 날까지 록빠의 촛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www.rogpa.com

가연숙 기자

###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을 가둔다

조각展 ‘바람을 잡아’ 진천중박물관서 24일까지

‘바람을 타고 무수히 많은 꽃잎이 난무한다. 그것이 바로 꽃의 흔적이다.’

자연의 조화를 바람과 꽃으로 각인해 온 작가 이점원(동국대 인문과학대학 미술학부 교수)의 ‘風花印-바람을 잡아’전이 충북 진천에 자리한 진천중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8월 24일까지 열린다. 고정된 이미지에 집착하지 않고 한자리에 머무름 없이 늘 움직이는 바람처럼 변화의 작업을 시도해 온 작가

의 서른 번째 개인전이다. ‘무제’의 이름을 단 60여점의 조각 작품 속에는 세월의 인고와 아로새긴 산화락(散花落)의 풍경이 메아리친다.

이점원 작가의 경주 작업장을 방문하는 놀자 학교 1박2일 문화탐방 프로그램과, 체험프로그램 ‘나도 작가-지점토로 만드는 꽃 도장’ ‘누름꽃 액세서리 만들기’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함께 열린다. (043)539-3847 가연숙 기자

## 젊음의 거리서 ‘무상’과 ‘마음지도’ 그리기

11th서울프린지페스티벌 8월 30일까지 홍대 주변서



‘현대인이여 쇼를 하자. 앞서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쇼를 하자.’

마인스트 김봉석(극단 마네프 대표)은 제11회 서울프린지페스티벌에서 공연 ‘무명세상1·2’를 통해 좌표를 잃은 인간 세상에 화두를 던진다. “불교의 정신세계를 다시 한 번 되새길 기회입니다. 탄생과 함께 지나는 번뇌의 뿌리를 자아의 소유주와 화합해 길을 열어 보이고 싶습니다.” 몸의 언어 ‘마인’을 통해 회복의 메시지를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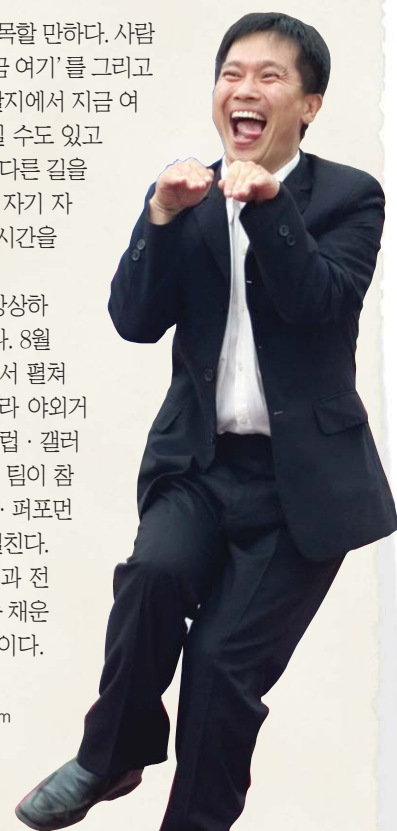
번뇌의 근원인 무명(無明)으로부터 변형과 왜곡으로 진화하는 현대인의 ‘쇼’를 테마로 욕망과 이익을 앞세운 인간을 표현한다. 삶의 단편과 근원적 번뇌에 대한 고민은 인간의 이해와 고찰을 재조명한다. 탐하고 화내며 욕심으로 얻은 굴레의 집을 되돌려 관객과 교감을 나눈다. “어느 날 스스로 돌아보면 그들 속에서 발버둥 치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구하려고만 애쓰다보니 시련의 끝이 없더군요.” 마인 ‘무명세상’은 관객 스스로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며 대화한다.

서울프린지페스티벌에서는 불교 색채에 흠뻑 취한 공연이 눈에 많이 띈다. 극단 작은신화의 연극 ‘진흙’은 마리아 아이린 포네스의 <진흙>을 원작으로 사회라는 구렁렁이 속 인생들의 자화상을 그린다. 극을 통해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한지 묻는다.

거리전시로 펼쳐지는 바쁜발공작소의 ‘마음의 지도’ 프로젝트도 주목할 만하다. 사람마다 다르게 지닌 공간의 기억을 공감대로 환기한다. 지도 중간에 ‘지금 여기’를 그리고 관객은 자신이 온 길을 마음속으로 더듬으며 출발지에서 지금 여기까지 온 길을 그려본다. 그 길은 실제의 여정일 수도 있고 의식적인 변화나 심리적인 것일 수도 있다. 서로 다른 길을 통해 지금 여기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공유하며 자기 자신의 여정에 타인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새로운 예술을 발견하고 실현하며 자유롭게 상상하는 ‘프린지(Fringe)’ 축제는 올해로 11회를 맞았다. 8월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간 홍대 젊음의 거리에서 펼쳐지는 독립예술축제다. 관객은 소극장뿐만 아니라 야외거리·로터리·공원·지하보도 그리고 카페·클럽·갤러리에서도 작품을 볼 수 있다. 230여개 공연자와 팀이 참여해 연극·무용·마임·인형극·음악·미술·퍼포먼스와 이를 혼합한 복합장르 등 다양한 공연을 펼친다. 축제 내내 40여개의 장소에서 300여회의 공연과 전시가 발길이 닿는 곳곳에서 신선한 예술을 가득 채운다. 프린지축제에서 독립예술은 현재진행형이다. www.seoulfringefestival.net (02)325-8150

가연숙 기자 omflower@buddhapia.com



### 전선(케이블)\_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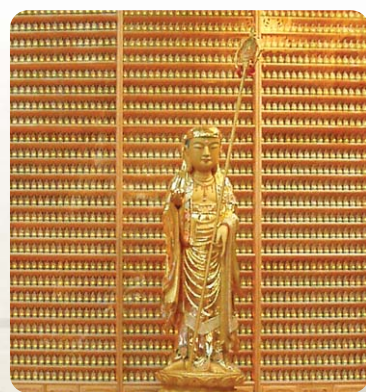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_대구 장성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_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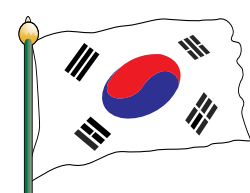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LED 인등·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전안 동심사



## 아름다운 등

‘동해 독도는 한국 땅’



영가등



주름등



팔각봉축집등



청사초롱



육각조립등



공단등



오색등



칼라(보카시)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031) 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연등·주름등·전선시공·영구위패·LED인등·LED전구  
공고: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빛깔이 사뭇하여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